

Nov
2020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Nov
2020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 리

10월 동향 주요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한·미 3분기 성장률 개선과 미 재정합의 기대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초반, 트럼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과 미 재정부양 합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위험선호 속 상승 출발

- 10월 초, 트럼프 코로나 확진 이후 조기퇴원 소식에 위험선호 반영되며 미국채금리 상승 연동 후, 재정합의 불확실성에도 위험선호 이어지며 상승 지속
 - 10월 초반,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 후 곧이어 조기퇴원 소식이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국채금리 상승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하며 상승 출발
 - 이어 재정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트럼프의 선별적 지원 소식에 위험선호 이어지며 상승 추세 지속

중반,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내년 2월물 신규 발행 계획 등에 의한 수급 부담 완화 이슈 등이 하락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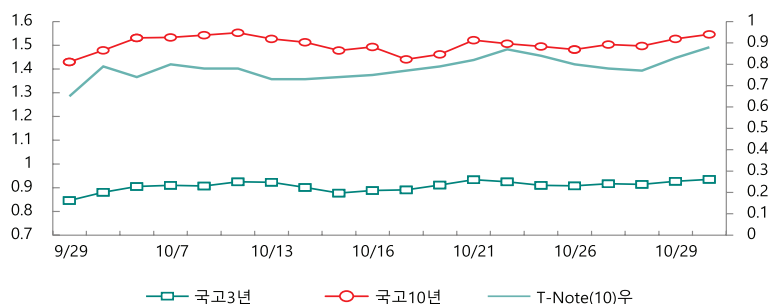
- 중반, 트럼프의 재정부양 합의 선회가 위험선호 지속시켰으나, 금통위 이후 내년 2월물 신규 발행 계획 등의 수급 부담 완화 이슈로 하락 전환
 - 트럼프 경기부양 합의 관련 입장 선회가 위험선호에 영향 미치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금통위 금리동결 후 채권시장 대기 매수세 유입 등이 상단 제한
 - 이후, 미 제약사 백신 임상 중단 소식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 미친 가운데 정부의 내년 국고2년물 신규 발행 계획도 장기 구간 중심 큰 폭 하락에 영향

후반, 3분기 국내 성장률 호조 속 미 재정합의 기대 등에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상단 제한

- 후반, 한·미 3분기 성장률 지표 예상치 상회 속 미 재정부양 합의 기대가 커진 점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세 등이 상단을 제한
 - 10월 후반, 한국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미 재정합의 기대가 커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탄력 받는 양상 시현
 -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이 확대되며 유럽 등에서의 봉쇄조치 재개 가능성 등이 상승 추세를 제한하는 양상 속에 마감

10월 평균
 국고채(3년): 0.91%
 국고채(10년): 1.50%
 T-Note(10년): 0.79%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11월 전망 미 대선 이후 재정부양책 합의 가능성 등이 위험선호 요인이나, 국내 성장세가 여전히 약한 가운데 코로나 주요국 확산이 이어지는 점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20. 1Q	2020. 2Q	2020. 3Q	2020. 4Q ^F
국고채(3y, %)	1.09	0.92	0.85	0.85

- 미 대선 후 재정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선거 불복이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금리 변동성을 높일 전망
 - 미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향후 미 재정정책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든 측면은 한·미 금리 상승 요인
 - 그러나 대선에 트럼프가 불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 또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 경우 주요 금융시장 및 국채금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 대선 불확실성이 점차 견힐 것으로 보이나, 예상치 않은 트럼프의 불복 요인 등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 3분기 성장률이 33.1% 증가하며 개선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유럽 코로나 재봉쇄와 미국 확진자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대되는 점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최근 제조업PMI 지표 등도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의 2022년까지 제로수준 금리 정책 등이 점진적 경기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든 심리가 장기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재확산함에 따른 재봉쇄 조치 우려 등이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미국 경제지표 개선흐름에도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우려 재부각 이슈 상존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할 요인

- 한국경제는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10월 물가가 (-)를 기록하며 성장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은의 국채 매입 정책이 이어질 전망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3분기 국내 성장 플러스 전환하였으나, 직전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경기회복의 더딘 양상은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클 전망
 - 여기에,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정책 지속이 수급상 국고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1월 국고채(3년) 금리는 0.85%~0.95%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 합의 가능성 증대 · 미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산

달러/원 환율

10월 동향 코로나 재확산, 미 대선 불확실성 등의 위험회피 요인에도 국내 3분기 성장을 선방, 위안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월 초, 트럼프 코로나확진에도 급속 퇴원하며 금융 시장 위험선호로 전환한 가운데 선별적 미 재정 지원, 위안화 강세로 하락 폭 확대

중반, 미 대선에 대한 시장이 바이든 승리를 반영하는 가운데 위안화 강세 등으로 1,130원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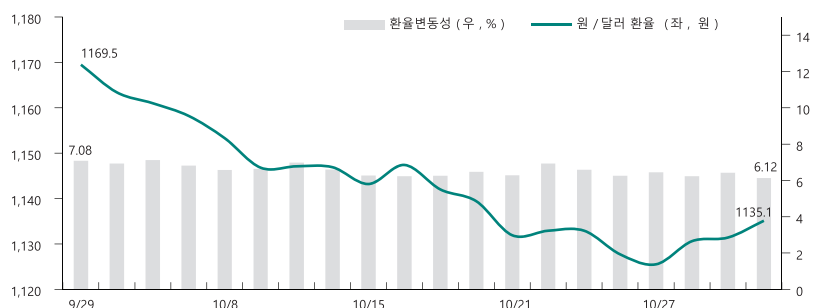
후반, 코로나 재확산 미 대선 불확실성의 환율 상승 요인 속 위안화 강세와 국내 3분기 성장률 선방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월 초, 추석연휴 기간 전해진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 이후, 조기 회복에 따른 영향이 위험선호로 작용한 가운데 위안화 강세에 1,150원대 진입
 - 10월 초, 추석연휴 기간 전해진 트럼프의 확진 소식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곧이어 조기회복 했다는 소식으로 환율은 큰 폭 하락하며 출발
 - 이후, 트럼프의 경기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이 있었으나, 곧이어 항공사 선별 지원 소식으로 달러화가 약세 전환한 가운데 위안화 강세 흐름이 강해지며 1,150원대 진입
- 중반, 위안화 강세, 미 대선 민주당 승리 반영한 달러 약세에도 당국 개입으로 1,140원 중반 흐름 보인다 미 부양책 합의 불확실성으로 1,130원대 진입
 - 10월 중반, 위안화 강세 지속 영향 속에 글로벌 통화시장이 미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를 반영한 달러 약세를 보임에 따라 1,140원 초반까지 하락 양상 시현
 - 당국 개입 이슈가 하단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달러 지위 약화를 견인하며 환율은 1,130원대 후반으로 진입
- 10월 후반에도 위안화 강세 이어지는 양상 속에 한·미 3분기 GDP성장률 선방 등이 원화강세 지속시켰으나, 미국과 유럽 코로나 재확산 등이 하단 제한
 - 10월 후반,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이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켰으나, 국내 3분기 성장률 플러스 전환 등의 이슈가 원화 약세 제한
 - 미국 부양책 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달러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며 1,120원대까지 환율이 하락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미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1,130원대 회복하며 마감

10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41.9원

10월말 달러/원 환율 : 1,135.1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11월 전망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추가 재정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달러화는 약세 탄력 받을 전망. 다만,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등이 하단 지지할 것으로 예상**

평균	2020. 1Q	2020. 2Q	2020. 3Q	2020. 4Q ^F
달러/원 환율(원)	1,195	1,220	1,188	1,135

- 미 대선 결과는 당선자에 관계없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다만 트럼프의 선거 불복 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보임
 - 미 대선 결과가 선거 불복 없다면 당선자에 관계없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달러 약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하게 될 경우 이는 해결책이 도출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 대선은 결과와 무관하게 불복없이 진행된다면 달러 약세 요인이나, 트럼프가 불복할 것을 가정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미 대선 이후 미·중간 재차 갈등구도로 재편할 가능성 속에 이에 대응한 위안화의 선제적 강세 기조 우위 등은 환율 하락 영향 요인이나 코로나가 재차 재확산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양상은 하단 지지 요인
 - 미 대선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간 재차 갈등구도로의 전환 가능성은 위험 회피 요인이나, 이에 대응한 선제적 위안화 강세 등이 그 영향을 다소 상쇄할 전망
 - 반면,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 영향 속에 유럽의 재봉쇄 우려 등은 안전 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달러 강세 견인에 영향을 미칠 전망

미 대선 이후 미·중 갈등의 불씨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가운데 코로나의 세계적 재확산 우려 등이 달러 강세 견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하며 회복 모멘텀 다소 회복된 가운데 외국인 달러 수요이 양호한 측면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빠른 하락에 대한 당국 경계감 강화 가능성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여전히 국내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미약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를 회복한 가운데 외국인 달러 수요이 양호하다는 측면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빠른 환율 하락에 대한 국내 경제 회복력 약화를 우려하는 외환 당국의 경계심리가 크게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은 환율 하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11월 달러/원 환율 레인은 1,120원~1,140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불복 이슈 · 미·중 갈등구조 재확대 ·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선 이후 추가 경기부양 합의 가능성 · 외국인 달러 수요 개선 가능성 · 위안화 강세

엔/원 환율

10월 동향 달러/엔 환율은 일본 이슈 부재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으로 하락 시현. 엔/원 환율도 미국 대선 기대 속 위안화 강세에 연동된 원화 강세가 하락 견인

엔/원 환율 전월대비 17원 하락한 1,084.6원에 마감

- 엔/원 환율은 바이든 당선 기대에 따른 원화 강세에 1,070대로 하락한 후 트럼프 선전 및 코로나19 재확산 불안에 상승 전환
 - 월 초, 바이든 당선 기대 및 미국 추가 부양책 기대, 한국 수출 호조 등에 원화 강세 영향으로 엔/원 환율 하락
 - 월 중반, 위안화 강세와 그에 동조화된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엔/원 환율은 1,070대로 하락
 - 월 후반,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바이든 ·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 축소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환율 상승 전환

11월 전망 달러/엔 및 엔/원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될 전망이다.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변화가 환율 변동의 핵심요인

달러/엔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 바이든 당선시 달러 약세 흐름 지속되며 달러/엔 환율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10월 선반영된 만큼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은 시장의 반전시나리오로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 달러/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시장 충격 완화 이후에는 추가 경기 부양기대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이 환율 하락 견인할 전망이다
 -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환율 하락 전망

엔/원 환율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 열려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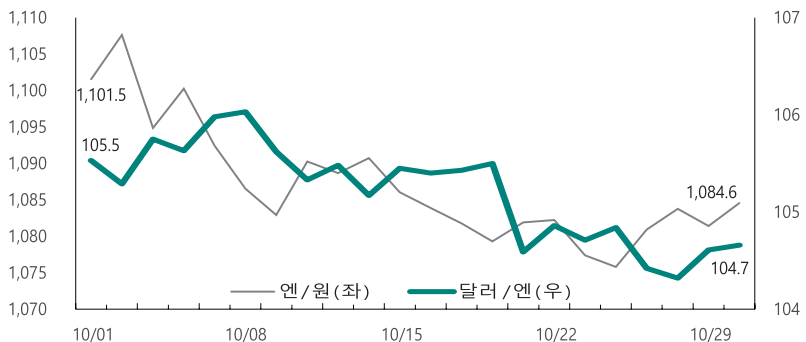
- 엔/원 환율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시 경기부양 기대에 따른 위험 선호가 엔/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반면, 트럼프 당선 또는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는 그동안의 원화 강세에 대한 되돌림으로 환율 상승 전환 전망

10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5.2엔

10월 엔/원 평균환율 : 1,087.0원

11월 엔/원 예상 범위 : 1,050~1,12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10월 동향 유로/달러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럽 코로나19 재확산과 ECB 통화완화에 하락. 유로/원은 원화 강세 흐름과 유로화의 약세 요인 등에 하락세 지속

- 유로/원 환율은 원화 강세 흐름 속 유럽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ECB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월 초, 위험선호와 약달러에 유로화 강세 시현했으나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유로/원 환율 하락
 - 월 중반,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과 ECB 라가르드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원화의 강세 흐름으로 환율 추가 하락
 - 월 후반, ECB가 12월에 긴급 매입프로그램 확대를 시사함에 따라 유로/달러 환율은 1.16달러대로 하락, 유로/원은 1,310원대까지 하락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44.4원 하락한 1,321.9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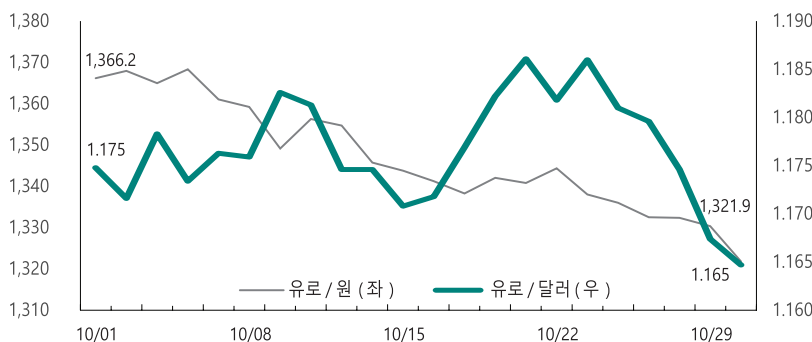
11월 전망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도 미 대선 영향권에 위치할 전망.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환율 방향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제한적 변동 전망
 - 유럽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ECB 통화 완화 정책 등 유로 약세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바이든 당선시 달러 약세 흐름 지속에도 유로/달러 환율 상승 제한될 전망
 - 같은날 치뤄지는 미국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도 환율 상승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유로/원 환율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원화 방향성이 크게 작용할 전망
 - 유로화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당선시 위험선호에 따른 원화 강세에 유로/원 환율 하락 예상되나 변동폭은 제한적일 전망.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단기적 원화의 가파른 약세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유로/원 환율 상승 전망

유로/달러 환율 제한적 변동 전망

유로/원 환율 미 대선 영향권에 위치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0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767달러

10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7.1원

11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90원~1,37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0.11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한 10월 수출/수입(7.7%/1.1% YoY) 10월 무역수지(\$8,880M)	2 한 10월 Markit PMI 제조업(49.8) 중 10월 Caixin 제조업 PMI(53) 일 10월 일본은행 PMI 제조업[F] 유 10월 Markit 제조업PMI(54.4) 미 10월 ISM 제조업지수(55.4) 10월 ISM New Orders(60.2) 10월 ISM 고용(49.6), ISM 구매물기(62.8)	3 美 대선선거인선/豪 RBA 한 10월 CPI(0.7% MoM, 1.0% YoY) 10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호 RBA 기준금리(0.25%) 미 9월 내구재 주문[F] 9월 제조업 수주(0.7%)	4 美 FOMC(-5) 한 10월 외환보유고(\$420,556) 일 9월 BOJ 금정위 의사록 공개 중 10월 Caixin 종합 PMI(54.5) 10월 Caixin 서비스 PMI(54.8) 유 10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46.2/49.4) 9월 PPI(0.1% MoM, -2.5% YoY) 미 10월 ISM 비제조업지수(57.8) 10월 Markit 종합/서비스PMI 9월 무역수지(\$-67.1b)	5 BOE 통화정책회의 한 9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일 10월 자민은행 PM(종합/서비스) 유 9월 소매판매(4.4% MoM, 3.7% YoY) 독 9월 공강수주(4% MoM, -2% YoY) 영 BOE 기준금리(0.1%) 미 FED 기준금리(0.0~0.25%) Powell Holds Post-FOMC Press Conference	6 일 9월 가계 소비지출(-6.9% YoY) 독 9월 산업생산 (-0.2% MoM, -9.6% YoY) 미 10월 실업률(7.9%)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83K) 10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87K)	7 중 10월 외환보유고(\$3,142,566) 10월 무역수지(\$37,006) 10월 수출/수입(9.9%/13.2% YoY)
8	9 독 9월 무역수지/경상수지	10 일 9월 BoP 경상수지 중 10월 외국인 직접투자(25.1%) 10월 CPI/PPPI(1.7%/-2.1% YoY) 유 11월 ZEW 서베이 예상(52.3)	11 한 10월 실업률(3.9%) 일 10월 공작기계 수주(-5.0% YoY)	12 한 10월 수출물가지수 (-0.3% MoM, -6.2% YoY) 10월 수입물가지수 (-1.3% MoM, -11.5% YoY) 일 9월 핵심가계수주(0.2% MoM) 10월 PPI(-0.2% MoM, -0.8% YoY) 유 9월 산업생산(0.7% MoM, -7.2% YoY) 미 10월 CPI(0.2% MoM, 1.4% YoY) Powell, Lagarde and Bailey Speak at ECB Forum	13 한 9월 통화공급 전월비 유 3Q GDP, 고용 9월 무역수지 미 10월 PPI(0.4% MoM, 0.4% YoY)	14
15	16 일 3Q GDP 9월 설비가동률(2.9% MoM) 9월 광공업생산[F] 중 10월 광공업생산(6.9% YoY) 10월 소매판매(3.3% YoY)	17 유 9월 건설생산(20% MoM, -0.9% YoY) 미 10월 수출/수입물가 (0.6%/0.3% MoM) 10월 수출/수입물가 (-1.8%/-1.1% YoY) 10월 설비가동률(7.5%), 광공업생산(-0.6%) 9월 기업재고(0.3%) 10월 소매판매 추정(9% MoM)	18 일 10월 수출수입(-4.9%/-17.2% YoY) 10월 무역수지(¥675.0b) 유 10월 CPI[F] 미 10월 주택착공건수(1.9% MoM) 10월 건축허가(5.2% MoM)	19 유 9월 경상수지(19.9b) 미 10월 선행지수(0.7%) 10월 기존 주택판매(9.4% MoM) 11월 필리페타 연준 경기 전망(3.3) Fed's Kaplan Moderates Panel Discussion	20 한 10월 PPI(-0.4% YoY) 일 10월 전국 CPI(0.0% YoY) 독 10월 PPI(0.4% MoM, -1.0% YoY) 미 11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21
22	23 한 11월 수출입 20일(전년 대비) 유 11월 Markit PMI 종합, 제조업, 서비스PMI 독 11월 Markit 서비스/종합PMI 미 11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F] 10월 사기업 연방 국채등 지수(0.2)	24 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 독 11월 IFO 기업환경지수 미 11월 리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25 한 12월 기업경기실사제조사제조업 일 10월 PPI 서비스(1.3% YoY) 미 3Q GDP, 10월 PCE 디플레이터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신규주택매매 FOMC 의사록 공개	26 韓 금융통화위원회 한 BOK 기준금리(0.50%) 일 9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독 12월 GK 소비자 기대지수(-3)	27 일 11월 도쿄 CPI 중 10월 산업생산 유 11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28
29	30 한 10월 광공업생산 10월 경수환경 산업지수 변동 일 10월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건설수주 중 11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 PMI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